

한국 벤처산업의 현황과 미래

한국CEO포럼 회원 세미나 개최

지난 3월 24일 신라호텔에서는 '한국 벤처산업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한국CEO포럼 회원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CEO포럼의 회원들이 참석해 벤처산업에 대한 관심과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협회 장흥순 공동회장은 '벤처산업의 현황과 생태계'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서 휴맥스 변대규 대표가 '벤처기업의 사회문화적 성과'에 관해 설명했다. 그리고 협회 조현정 회장이 '벤처산업의 역할과 미래비전'에 대한 강연을 함으로써 기존 산업과 벤처의 연계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한국CEO포럼 유상욱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벤처기업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 주최 : 한국CEO포럼 ● 사회 : 전하진(인케코퍼레이션 대표) ● 주제발표 : 장흥순(협회 공동회장), 변대규(휴맥스 대표), 조현정(협회 회장)



벤처산업의 현황과 생태계

장 | 흥 | 순 | 벤처산업은 태동기, 기반 구축기, 조정기를 지나 현재 재도약기를 맞고 있다. 부실기업이 퇴출하고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건전한 벤처생태계로 회복해 가는 과정이다. 벤처산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 위주의 High Tech가 전체 벤처의 69%를 차지한다. 2004년 3월말 조사된 것을 기준으로 73.1%에 달하는 기업이 신기술기업이며, 그 뒤를 연구개발기업(16%)과 벤처투자기업(13%)이 잇고 있다. 대다수 기업들이 초기성장기(36.4%)이거나 고도성장기(41.3%)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86%를 차지한 것 역시 뚜렷한 특징이라 하겠다. 벤처기업의 CEO는 40대가 주축이며 상대적으로 석박사급 고학력 비율이 높고, 과반수 이상이 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3년도 매출액은 전년 대비 24%가 증가하였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7.2%를 기록해 상당 수준 증가 추



협회 장흥순 공동회장

세를 보인다. 제조업을 기준으로 한 벤처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중소기업(4.6%)보다 높고 대기업(8.2%)과 비슷한 수준인 8.3%를 기록했다.

벤처기업은 벤처거품, 반(反)벤처 정서의 형성으로 일부 역기능도 있었으나 GDP의 3%, 총 수출의 4%, 총 취업자의 2%를 점유하며 경제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역동적인 기업가정신을 대표하고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요소기술 개발로 시장의 확대 재생산을 이룩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것은 벤처기업의 공로라 할 수 있다.

벤처기업의 사회문화적 성과

변 | 대 | 규 | 벤처와 기존 기업의 차이점으로 크게 3가지를 꼽겠다. 첫째는 위험을 감당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기업 내부의 위험을 창업자 혼자 짚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나누는 것이 벤처의 특징이다. 창업자는 제한된 위험만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기업'이라는 개념이 없고 가족기업으로 키우려고도 하지 않는다. 아마도 CEO 자리를 대물림하는 벤처기업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로 벤처기업의 이익 창출은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다. 따라서 기업과 개인 간에 권력의 변화가 생겼다. 기존 기업은 이익의 원천이 공장의 효율성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기업의 권력이 클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벤처기업들은 High Tech와 관련되어 있어서 개인의 전문적인 역량이 중요하고, 상대적으로 이익의 원천이 개인에게로 옮겨졌다. 결국 개인이 가진 권력도 커진 것이다.

셋째로 벤처는 기업가를 위한 환경이나 자금 원천이 다르다. 우리나라는 기업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이 미비했다. 그러나 벤처의 등장으로 엘리트들이 기업을 해보겠다는 비전을 갖게 됐다. 사회의 지원도 생기고 기업가를 위한 환경이 생겨났다는 점에서 벤처산업은 우리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주도해 왔다.



휴맥스 변대규 대표

벤처산업의 역할과 미래 비전

조 | 현 | 정 | 벤처산업은 신기술의 사업화를 선도한다. 대형·기초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요소·응용기술 개발을 담당하여 기술과 시장의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술혁신에 기초한 연구개발 능력은 벤처산업의 경쟁우위를 가능케 하는 원천이다.

또 벤처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우수인력을 영입하고 공동개발을 강화하는 등 연구개발을 위해 힘쓰고 있다. 대기업과의 협력에 있어서 명확한 역할분담에 의한 수평적 협력모델을 정립해 상호 윈-윈 관계 구축에 기여하는 점도 벤처의 역할이다. 글로벌화 역시 빼놓을 수 없다. 벤처기업의 과반수가 수출이나 지사 설립 등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화를 진행 중이다. 그밖에도 벤처산업은 윤리경영을 도입하고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기업 투명성을 제고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앞으로 벤처는 대한민국 경제 10%를 달성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매진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매출 1천억원, 수출 1억불 초과 중핵기업을 300개 육성하고 20개의 1조원 기업을 배출하는 것이 비전이다. 앞으로 벤처생태계가 구축되면 신성장 엔진의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글로벌 스타의 출현을 지켜보게 될 것이다. 또한 이공계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고, 이들이 벤처리더로 성장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다. 이러한 벤처생태계 조성은 결국 21세기 지식강국으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협회 조현정 회장

격려사 : 벤처산업의 중요성

유 | 상 | 옥 |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벤처산업 육성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벤처가 그동안 우리 경제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새삼 확인하면서 앞으로 벤처의 활성화에 기대를 갖게 된다. 특히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협력관계가 더욱 원만히 이루어져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벤처기업이 그 핵심역할을 감당해 주길 바라는 바이다. 많은 벤처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로 계속 도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다.



한국CEO포럼 유상옥 회장